

강의 신 하백에게 처녀를 바치는 풍습과 서문표 이야기



신현배

시인, 아동문학가

4201708@hanmail.net

중국 전국 시대 때의 일입니다.

어느 해 위나라 북쪽 엽 지방에 서문표라는 사람이 현령으로 부임했습니다. 서문표는 백성들의 사는 형편을 보려고 고을에 있는 마을들을 순시했습니다.

한 마을을 찾아가 보니 사람들이 별로 없고 썰렁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탓인지 논과 밭을 일구지 않아 황폐했습니다. 빈집들이 하도 많아 유령의 마을에 온 듯했습니다.

어찌다 마주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몹시 어둡고 침울했습니다. 한결같이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서문표는 어찌된 일인가 싶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 마을은 왜 이리 빈집이 많고 사람들이 별로 없느냐? 사람들의 얼굴 표정도 밝지 않고 침울하구나.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마을 사람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을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을 지키는 신은 하백입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언제부터가 해마다 예쁜 처녀를 골라 하백에게 신부를 바치는 풍습이 있습니다. 하백은 여자를 좋아하여 젊은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는데, 한 해라도 신부를 바치지 않으면 크게 노하여 우리 마을을 홍수로 쓸어버린다고 합니다. 하백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면 신부를 바쳐야 한다며 그 행사에 쓸 비용을 관리들이 세금으로 거두어들입니다. 그러고는 그 행사를 치르고 남은 돈은 고을 관리들과 무당이 나누어 가진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세금을 낼 형편이 못 되니 너도나도 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딸을 가진 집에서도 딸을 하백의 신부로 빼앗길까 두려워, 하나 둘 이 마을을 떠났답니다. 그러니 이 마을이 황폐해지고 빈집이 늘어날 수밖에요.”

서문표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녀를 신부로 바친다는 핑계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여? 못된 놈들이로구나. 이 마을에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마다 빠지지 않고 강의 신 하백에게 처녀를 신부로 바쳤으니까요.”

“그래?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하백에게 신부를 바치는 행사에 참석하고 싶구나.”

말을 마친 서문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의 신 하백에게 처녀를 바치는 행사는 해마다 봄에 열립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서문표에게도 전갈이 왔습니다. 현령이 그 행사에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서문표는 관리들을 거느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에는 행사를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늙은 무당이 젊은 무당 10여 명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늙은 무당은 서문표를 향해 예를 갖추어 머리를 숙였습니다.

서문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당은 하백의 신부를 내 앞에 대령하라. 얼마나 이쁜지 봐야겠다.”

현령의 명령으로 한 처녀가 불러왔습니다. 처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서문표는 처녀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신부가 너무 못생겼다. 강의 신 하백의 신붓감이 되려면 아름다워야 하는데.”

서문표는 늙은 무당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무당 할멈이 다녀와야겠다. 지금 당장 하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다음에 아름다운 처녀를 신부로 보내 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시라고…….”

서문표는 나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뭇들 하느냐? 무당 할멈을 강으로 던져라!”

나졸들은 늙은 무당을 번쩍 들어 강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서문표는 늙은 무당이 강물에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고는 한동안 강가를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찌된 일이나? 하백에게 간 무당 할멈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꾸물대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무당 할멈의 제자가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서문표의 명령이 떨어지자 젊은 무당들은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젊은 무당들 가운데 한 사람을 번쩍 들어 강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젊은 무당도 돌아오지 않자 서문표의 명령을 계속되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그 자리에 있던 젊은 무당 10여 명이 모두 강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잠시 뒤 서문표가 말했습니다.

“무당 할멈과 그 제자들이 하백에게 갔는데도 돌아오지 않는구나. 모두들 여자라서 그런가? 이번에는 남자가 가서 그들을 재촉하여 데려와야겠다.”

서문표는 관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관리들은 모두 겁에 질려 사시나무 떨 듯 했습니다.

서문표는 늙은 무당과 한통속이 되어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낸 세 명의 관리가 누구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 한 명을 지목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다녀오는 게 좋겠군. 하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다음에는 예쁜 처녀를 바치겠다고 말하고, 내가 앞서 보냈던 무당들을 재촉하여 데려오너라. 알겠지?”

서문표에게 지명당한 관리는 질겁을 하여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아이고,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혜엄을 못 칩니다. 하백에게 도착하기 전에 물귀신이 될 겁니다.”

서문표가 눈을 부릅뜨고 호령했습니다.

“네 이놈! 그게 무슨 말이냐? 사또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애들아, 밧들 하고 있느냐? 저놈을 강으로 던져라!”

“예, 사또 나리!”

나졸들은 관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를 번쩍 들어 강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윽고 서문표는 물속에 수장한 관리와 한패인 두 명의 관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차례가 된 것을 알아차린 듯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서문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과 단짝인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구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희들이 같이 가서 하백에게 내 말을 전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데려오너라.”

서문표의 명령은 추상같았습니다. 나졸들은 두 관리를 번쩍 들어 강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강가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언제 누가 지목되어 강물에 던져질지 몰라 공포에 질린 표정들이었습니다.

잠시 뒤 서문표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하백에게 보낸 사람들은 모두 돌아오지 않는가? 하백이 융숭한 대접을 하니 그곳에 놀러왔어 살 모양이지? 여러분 중에 하백을 만나러 갈 사람이 없는가? 원한다면 내가 지금 보내 주지.”

서문표가 이렇게 청하자 사람들은 모두 바닥에 꿇어앉았습니다. 그들은 얼굴도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몸을 떨었습니다.

그제야 서문표는 위엄 있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백에게 보낸 자들이 누구지 아느냐? 하백에게 처녀를 바친다는 구실로 가난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죄 없는 처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한 자들이다. 앞으로 또 이런 짓을 하겠다는 자가 있다면 당장 내 앞에 나서라. 하백에게 보내 주마.”

서문표가 늙은 무당과 그 제자들, 그리고 탐욕스런 관리들을 처단한 뒤, 위나라 북쪽 엽 지방에서는 처녀를 강의 신 하백과 결혼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금이 무서워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과, 딸을 빼앗길까 두려워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 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은 예전처럼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